

맨큐·라가르드...세계경제 거목 24人과의 대담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 / 사공일 지음 / 세계경제연구원 펴냄 / 3만원

박창영 기자 | 입력 : 2019.06.14 17:12:55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011년 11월 학생들에게 수업을 거부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 반(反)월가 시위가 한창이던 때였다. 학생들은 맨큐 교수의 강의를 경제적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정당화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몇 년 후 그와 만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79)이 말을 꺼냈다. "불평등에 대해 얘기해 보자"고.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는 사공일 이사장이 경제 전문가 24명과 진행한 대담을 엮은 책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역사의 종말’을 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세계 최고 경제 브레인과 함께 주요 국 경제 현황,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이의 스펙트럼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저자는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으로 핵심을 찌른다.



앞서 사공일 이사장이 던진 화두에 맨큐는 답한다. "난 불평등 해소에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데 40년이 걸렸는데 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다. 적어도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는 토마 피케티가 강조한 조세제도 개혁 역시 불평등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일 뿐 절대 근본적 솔루션은 될 수 없다고 역설한다.

대답자들이 미·중 무역전쟁을 수년 전 예견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기 소르망 파리정치학교 교수는 "지금까지 중국의 발전엔 운이 많이 작용했다. 덩샤오핑 같은 뛰어난 리더가 있었고, 중국의 값싼 상품을 소비해주는 미국 소비자들이 존재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뛰어난 리더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 중국 소비재를 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호매츠 전 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의 존재를 의식할 때 미·일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아베가 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했지만 미·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자크 아탈리 전 프랑스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은 "중국이 세계 리더가 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은 지역 차원의 리더는 원하지만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시경제, 창업과 기업가 정신 등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데도 인터뷰 자체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졌음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는 저자가 반세기 전부터 세계 경제 명사들과 맺어온 끈끈한 관계에서 비롯된다. 일례로 인터뷰어로 소개된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그와 20년 넘는 친구이다. 사공일 이사장은 1969년 미국 뉴욕대 교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IMF 특별고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비전그룹 의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지내며 국내외 경제 현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박창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